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  |  |  |
| --- | --- | --- | --- |
|  | **교과목명** | : | 철학의이해 |
|  | **학번** | : | 202234-153799 |
|  | **성명** | : | 한승환 |
|  | **연락처** | : | 010-2862-0200 |

EMB000023580f65 ※ A4용지 편집 사용

1.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인가, 욕망하는 존재인가?
   1. 플라톤이 생각한 인간다운 인간은 어떠한 인간인가?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몸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오직 육체적 감각에만 의존하고 탐닉하여 살아갈 경우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인간 삶의 본질적인 의미에 소홀히 한 채, 피폐한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가졌다. 그 문제에 대한 해소 수단으로써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는 이성의 힘과 그 역량에 대하여 플라톤은 강조했다.

세상을 구성하는 사물들은 그것들의 표면에 비추어지는 모습 이 외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플라톤은 보았고, 그 요소들의 참된 의미들을 관찰하는데 필요한 이성의 역할을 역설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로써 작용하는 우리의 감각은 삶의 참된 의미들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는 욕망과 기재를 잘 통제해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했다.

* 1.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왜 이성을 잘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참된 본성을 찾기 위해 이성을 잘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잘 발휘하는 법에 그치지 않고, 이성을 옳게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더 근본적인 참되고 선한 본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매 순간 단순히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발휘하는 이성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해결에서 우리를 가깝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실한 본성은 자연의 설계와 법칙에 따라 우주에 심어져 있는 진리이고 이것을 우리가 ‘덕’이 있는 이성의 활용으로 찾아가야 인간이 자연에서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그는 보았다. 이러한 덕있는 이성적 사고와 행동 능력은 우리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중용의 덕’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 1. 인간이 자연에서 입법자라는 칸트의 말은 무슨 의미인가?

칸트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감각으로 탐지할 수 없는 원래의 고유한 존재세계를 ’물자체’라고 말했다. 칸트의 주장에서, 인간은 자연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에게 자연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말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경계 밖에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생태계 안에서 인간은 우리가 인지하는 영역 안에서 자연의 모습을 규정하고 입법하며, 사고한다고 칸트는 보았다. 그 속에서 인간은 서로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가지고 정의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자연에서의 입법적인 인식을 토대로 질서를 형성한다고 칸트는 말했다.

* 1. 정언명령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하여 도덕적인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도덕적인 이성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통해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는 자연적 경향성경향부터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가지며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실천적인 수준에서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리 내면의 ‘정언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철학에서 정언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입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행위규칙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모두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규칙이 있다면 개인의 행복 쟁취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해야 할 도덕적으로 가장 성숙한 입법인 것이다.

* 1. 홉스에 따르면 사회계약은 어떤 이유로 체결될 수 있는가?

홉스는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에는 절대악과 절대선의 존재가 없다고 가정했고, 선과 악은 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개인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이루는 공동체 안의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기보존의 본성을 저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세계에서 행동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타고난 본능에 충실한 삶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개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는 곧 만인이 만인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띈다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사회 모델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성의 계산능력을 활용하여,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자유를 사회에 일부 양도하는 대신,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로 그 규칙들에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회 모델을 사회계약의 체결의 바탕이라고 보았다.

* 1. 흄은 도덕이 어떻게 성립된 것이라고 보았는가?

흄은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정념을 이길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칸트가 제시한 ‘이성은 경험적 인지 이전의 것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그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라는 개념에 부합되지 않고 반대되는 입장으로써,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은 경험적으로 학습된 감성의 영역에서 나오는 의지로 인하여 발현된다고 생각했다. 흄에 따르면 도덕의 구분과 실현은 우리 내면에 이성의 기구에서 판단되는 도덕적 생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인격이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 1. ‘무의식의 의식화’란 무슨 말인가?

프로이트는 우리가 가지는 이성은 사실 인간 각각의 내면에 우리가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욕망이 조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의식하지 않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이 인간을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우리의 정신은 의식의 층과 무의식의 층으로 나뉘어 있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 자신에 대한 요소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무의식의 영역에 넣어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 요소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진실되게 바라볼 때 무척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의식속의 우리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자신의 설명하지 못할 행동에 정당화를 하지 않고 참된 본질을 알고 인정하게 됨으로써 더 자유로워 진다. 이를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의식화’라 불렀다.

* 1. 프로이트에게 도덕이란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아가 에고, 이드, 그리고 초자아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에고가 인간의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며, 이드는 인간의 성적 욕망인 리비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초자아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프로이트는 보았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가지는 무의식의 영역이 에고를, 즉,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쾌락적인 동기가 생성되는 이드는 건강한 사회의 유지를 돕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억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러한 초자아의 억압이 두렵기 때문에 따르는 규칙이 도덕인 것이다.

1. 유가와 도덕적 삶
   1. 인간의 본성이 왜 선한지에 대한 유가의 입장은?

유가는 자연에 속하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보살펴주고 생육하는 우주의 사려가 깊은 염려야 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우주 자연의 역동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력을 바탕으로 인간에게는 어질고 선한 속성이 깃들어 있다고 유가는 말했다. 유가는 인간과 자연을 별개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대자연의 굴레속에서 영원히 상호작용하며 질서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유가는 인간이 땅과 하늘과 더불어 우주를 받드는 세개의 기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의식 주관을 가지고 있고 본능과 욕망을 더 선한 방향으로 절제하는 능력을 타고 났다고 유가는 보았다.

* 1. 유가에서 예의법도가 갖는 의미는?

유가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예의법도라고 말했다. 인간은 하늘의 질서와 상응되도록 살아가면 그것으로 지극히 선하고 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유가사상인데 이는 인의예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유가는 말했다. 인의예지란 곧 옛 성인들이 그들의 뛰어난 도덕적 성찰로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연구하여 인간이 이로운 세상을 형성하기 위하여 행위 하는 도덕적 가르침인 예의법도를 일컫는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성찰하는 능력을 통해 어느정도 수준의 도덕적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능력의 보통의 수준에 한계 되어 있으므로, 유가는 위로는 옛 성인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선한 무리들과 어울려 나쁜 것은 눈에도 귀에도 담지 않고 살아가면 참된 지혜와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 유가를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가는 우주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어짊이 인간의 천성이 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 인은 인간이 본래의 최고로 선한 모습을 그 자연 생명력의 본질적인 모습으로써 찾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이 타고난 의식 주관을 도구로 이용하여 성찰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태평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유가는 보았다.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는 욕망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최선으로 발휘해야만 다른 짐승들과 분리되는 형상으로 우주의 기둥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행을 통해 삶의 진정하고 참된 의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는 유가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 되는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 1. 유가사상이 봉건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는?

유가사상이 도덕적 규범으로써 당시 중국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던 배경으로, 철기문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력을 동원하여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있던 제후들이 전통적인 지배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여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제후들은 인의와 예의법도를 다시금 이용하여 백성들이 군주를 섬기는데 중심적인 노릇을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주었다. 여기서 예의법도는 지배 계층들의 폐단과 부패한 정치를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섬기도록 핍박받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시대적 배경상, 유가사상이 엘리트 층의 권력이 가지는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백성들의 고통이 확대되는 효과를 초래했다.

참고문헌 : 방송통신대학교 교재(철학의이해)